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진교회

2022년 설에 드리는 가정예배



● 2022년 은진교회 말씀 ●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히브리서 10:35)

-
- ① 새해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함께 모인 가족 간에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깨끗한 몸과 마음, 단정한 옷차림을 합니다.
 - ③ 제사상은 차리지 않고 음식을 준비하여 함께 나눠 먹으며 명절의 기쁨을 나눕니다.
-

✽ 설에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 예배부름 / 지금부터 음력 설날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 찬 송 / 28장(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 1)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 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합니다
- 2)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 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 3)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 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 공동기도 / (다함께 한 목소리로)

새 일을 이루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우리 가족들을 지켜 주심으로 이렇게 또 다시 설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이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숙입니다. 우리 가정의 2022년 한 해를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가정되게 하옵소서. 흔들리고 불확실한 시절을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위기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우리 가정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해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좋은 기회가 있을 때는 지혜를 주시고 실패의 순간에서도 용기를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족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담대한 마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생 속에서도 굳게 다져온 조상들의 터전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부흥케 하옵소서. 그래서 영육 간에 부흥한 우리의 터전을 후손에게 물려주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족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성경교독 / 다같이

인도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다같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인도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다같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 신앙고백(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성경봉독(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 고린도전서 16:15~18

- ¹⁵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¹⁶ 이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¹⁷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¹⁸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 말 씀 / “~의 집이라는 축복”

설날은 새해를 시작하는 날은 아닙니다. 하지만 양력을 쓰기 전에는 설날이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그냥 민속명절 중 하나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고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의 집’이라고 칭찬을 듣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개인이 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함께 잘돼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누구누구네 처럼 잘돼야 한다’, ‘누구누구네 좀 본 받아라’ 하는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바나의 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족 전체가 모범을 보였기에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의 사람들의 말을 복종하고(16절) 알아주라고(18절) 하고 있습니다. 알아주라는 말은 인정해 주라는 말이지요.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자발적인)복종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인정해 주는 이름 있는 가문으로 알아주는 것 역시 기분 좋은 일입니다. 오늘 성경말씀을 잘 묵상하면 우리도 이런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을 가져야 이런 가정이 되는 것일까요?

첫째,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그 가정을 이끌어 가는 정신(情神)입니다. 또 가정이나 사회를 보는 시각(視覺)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서로 다르면 불화가 생기고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명문가로 소문난 가정들은 한결같이 혼자 믿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믿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스데바나도 처음에는 혼자 믿었습니다(행 7:24, 여기서는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자였다). 하지만 스데바나는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게 해서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을 만든 것입니다. 또 하나이 명문가로 알려지는 고넬료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행 10장).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신만 베드로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심지어는 일가친척과 자신의 친구들까지 함께 듣게 하였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족의 가치관이 하나로 향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모습으로 뭉쳐지는 것입니다.

둘째,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자신의 것을 양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양보하지 못하는 것은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어떻게 찾아옵니까? 예수님에게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양보(희생)하여 주셨습니다. 만약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양보(희생)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야 하고, 또 서로 서로가 원수가 되어 힘에 의한 불안한 평화(?)를 맞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양보(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이웃과도 화해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예수님의 이런 정신을 살려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는 모습이 있을 때 서로 하나로 모아지고

힘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밖으로 향하는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만 위하여 뭉치는 가정을 축복하고 본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온 스데바나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자신들만 잘 먹고 잘살기 위하여 뭉쳐서 칭찬을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였습니다(15절). 이 집안은 교회 안에서 힘든 자들을 돌아보았고, 또 친히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 같은 복음을 일군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17,18절). 즉 자기 가족으로만 향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밖으로 넘쳐흘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사회에 봉사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작든지 크든지 사회의 그늘진 부분을 가족이 함께 감당하는 모습이 있을 때 '~의 집'이라는 칭찬이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를 향한 관심을 생각할 때 스데바나가 그렇게 한 것처럼 교회가 바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리고 실제적인 통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스데바나의 집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될 때, 가족 구성원이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는 모습이 넘쳐날 때, 그리고 작더라도 사랑을 밖으로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의 집'처럼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 인정해 주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각오로 설날을 보내고, 또 2월 3월....을 보내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됩시다.

* 기 도 / 인도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되게 설 가정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한 해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복 주시는 가정이오니 서로 화목하게 하옵시고, 사랑의 피로 하나 되어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한 가족들, 멀리 나가 있는 가족들, 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축복하며 덕담 나누기 / 어른이 자녀에게, 어른은 서로에게

* 찬 송 / 559장(3055장)(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1)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2)아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